

'4개대회 연속 톱10... 희망을 봤다'

리우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큰 사고없이 성황리 종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했다. 한국은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206개 출전국(난민팀 제외) 중 종합순위 8위와 함께 2004 아테네올림픽부터 4개 대회 연속 올림픽 '톱 10'을 달성했다. 선수단은 귀국 후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해단식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 기간 동안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해단식은 최종삼 총감독의 성적보고를 시작으로 강영중 회장의 인사, 김종덕 장관의 인사, 정몽규 선수단장의 답사 및 단기 반환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삼 총감독은 성적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금메달 10개 획득은 실패했지만 4개 대회 연속 종합순위 10위권 달성과 함께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리우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차기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종합 8위는 우리의 목표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대회 기간 내내 선수들은 땀과 눈물을 흘렸다.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메달만이 아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선수단 정몽규 선수단장이 24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다는 것에 희망을 봤다"고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번 올림픽 경험을 거울삼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화합과 단결이 1년 반 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선수단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이뤄낸 총 21개의 메달은 값

진 성과다. 또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민관외교관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정 단장은 "해단식을 끝으로 리우에서의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지만 이번 대회를 바탕으로 우리 선수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 없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궁, 펜싱, 사격,

역도, 체조 등 한국선수단을 비롯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영중 대한체육회장, 유관단체 인사, 참가종목 단체장, 선수단 가족 등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귀국한 박인비 등 골프 대표팀과 유도 대표팀은 불참했고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태권도 선수대표팀은 25일 귀국한다. /김민근기자

매 주말 무주에서 '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 품새, 자유품새, 마스터즈 부문 태권도인의 폭넓은 참여기회 제공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태권도원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 주말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초등부터 일반(가족)까지 폭넓은 참여기회로 호응을 받고 있는 태권도원 경연대회는 시범, 품새(가족품새), 자유품새, 마스터즈 대회로 구성, 남녀노소 제한 없이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 10일 첫 예선전을 시작으로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경연대회가 열리며, 11월 19일(토)과 20일(일)에 종목별 결승전이 열린다. 참가자(팀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주어지는 '태권도원 경연대회'는 기존 태권도 대회와는 다른 태권도 문화축제 형으로 진행된다. 재단 김성태 이사장(본부장)은 "주말마다 열리는 대회가니 만큼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SBS 드라마 '닥터스' 시청률 20%넘기며 종영

SBS TV 드라마 '닥터스'(극본 하명희, 연출 오충환)가 20%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24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닥터스' 20회는 전국 평균 시청률 20.2%로 종영했다. 대전에서 22.9%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모두 22.0% 시청률을 보였다. 지난 6월20일 전파를 탄 '닥터스' 첫회는 12.9% 시청률로 출발했다. 이후 시청률이 꾸준히 오르며 20%를 넘겼고 8일 방송된 15회는 21.3%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후속작은 이준기 주연의 날의 연안-보보경심 리(극본 조윤영, 연출 김규태)로 29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기획사 두 축 SM·JYP 협업 '본 투 비 와일드' 공개

3대 가요 기획사 중 두 축인 SM·JYP엔터테인먼트가 다시 협업한다. SM은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 '스테이션'을 통해 JYP와 협업한 '본 투 비 와일드(Bom to be Wild)'를 28일 공개한다. JYP 프로듀서 박진영이 곡을 작사·작곡한 곡으로 여름용 파티곡을 표방한다. SM 소속인 '소녀시대' 효연, JYP 소속인 '미쓰에이' 민·2AM 조권이가 댄스 퍼포먼스를 맡았다. 박진영은 직접 목소리도 보냈다. 미국 남부 사우스 합합 스타일에 유려한 멜로디를 더했다. 효연, 민, 조권이 댄스 팀 이름은 '트리플 티(Triple T)'로 결정했다. T는 '트러블(Trouble)', '트리트(Treat)' 등의 의미를 담았다. 어린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온 3명의 동고동락이 녹아 있다. 음원 공개에 앞서 전날인 2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본 투 비 와일드' 첫 무대를 공개한다. /김민근기자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 드림팀' 출전한다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드림팀'이 꾸려진다면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까? 올림픽 야구에 현역 메이저리거들이 출전한 경우는 없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에도 미국이나 남미 국가의 대표팀 명단에 유명한 메이저리거는 눈에 띄지 않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4일(한국시간) 미국 국적의 메이저리거를 모아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설 미국대표팀 24명의 가상 명단을 구성해 공개했다. ESPN은 "올림픽 야구의 문제는 메이저리거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남미 국가들은 최고의 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메이저리거에서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미국대표팀 24명 가상 명단 공개

뛰지 않는 선수들 중 최고의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한다.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다브릿슈 유가 일본 대표팀에 포함됐고, 훗날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 류현진은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딴 한국이 쿠바와 결승전에서 3-2로 승리할 때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소개했다. ESPN은 "민와 메이저리거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한다면 '드림팀'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은 무키 베츠(우익수·보스턴 레드삭스), 코리 시거(우격수·LA 다저스), 마이크 트라웃(중견수·LA 에인절스), 크리스 브라이언트(3루수·시카고 컵스), 브라이스 하퍼

(좌익수·워싱턴 내셔널스), 폴 골드슈미트(지명타자·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앤서니 리조(1루수·컵스), 버스터 포지(포수·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트레아 터너(2루수·워싱턴) 순이다. 여기에 찬스 시스코(포수), 알렉스 브레그먼(내야수·휴스턴 애스트로스), 놀런 아레나도(3루수·콜로라도 로키스), 크리스티안 엘라치(외야수·마이애미 말린스)가 백업 멤버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SPN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도미니카공화국 대표팀으로 나섰던 매니 마차도(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명단에서 뺐다. 투수진은 클레이튼 커쇼(다저스), 매

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노아 신더가드(뉴욕 메츠), 아론 산체스(토론토 블루제이스), 마이클 풀머(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존 그레이(콜로라도), 알렉스 레예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델린 베타시(뉴욕 양키스), 자크 브리튼(볼티모어), 마이클 코페치, 션 뉴컴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미국대표팀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베이징올림픽 당시 미국은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던 베타시와 제이키 아리아에타, 맥스터 파울러, 브렛 앤더슨,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등 유망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